

오늘의 기사판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 개막행사

역사속의 오늘

뉴스퀴즈

5일
해사
▲제 2회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 개막행사=오전 11시30분 장흥군 회기면 진북리 진북마을, 9일까지.
▲우리음식연구회 생약초 이용 요리과제 발표=오후 1시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2006 청소년 정신보건 세미나 '청소년과 사이버문화'=오후 2시 전남대 융복합문화관 4층.
6일
▲수문해수욕장 개장식=오전 10시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제 13회 교육장기 및 제 14회 협회장비 어린이 써름대회=오전 10시 장흥군 관산초등학교.
▲건강 생활실천 대회=오전 10시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황토코리너티브인 조성 예정부지 도시계획 시

설용역 중간보고회=오전 11시 무안군청 상황실.
▲과학기술 교류협력센터 건립 기공식=오후 2시 광주시 테크노파크단지내.
▲광산업 의료산업 연계발전 세미나=오후 2시 광주디자인센터.
▲2006 중점지도학교 환경보전 실천교육=오후 1시30분 광주시 서구 치평중학교.
▲제 1회 아름다운 광주공원 만들기 주민대학=오후 4시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강당. 이명규 광주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와 녹색공원 만들기 사례'에 대해 강연.
▲해피콜 금연교실=오후 3시 20분 석산고.
▲남도소리상설무대 '이남초 홍보가'완창무대=5일(수) 오후 6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 227회 정기연주회 '바

르톡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6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베토벤 서곡 '피델리오', '바르톡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등 공연.
▲유정아 피아노 독주회=6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한국서예협회 광주시지회 전=15일까지. 자미갤러리, 광주북구청 갤러리.
▲조선왕실의 가마전=30일까지 목포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왕실에서 사용했던 가마전시.
▲대학미전=26일까지 롯데화랑.
▲올해의 작가 '윤애근·정승규'전=1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프랑스 작가 장 콕토 태어남(1889)
▲프랑스의 재무상 에피엔 드 실루엣 태어남(1907)
▲헤이그 밀사, 평화회의에 호소문 제출(1907)
▲프랑스 제4대 대통령 폴피투 태어남(1911)
▲로마 교황청, 김대건 등 순교자에게 시복(1925)
▲영국 국민보험법 실시로 '유럽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 실현(1948)
▲지방자치법 공포(1949)
▲제3한강교(한남대교) 개통(1957)
▲문공부, 북괴 호칭을 북한으로 바꾸도록 각 부처에 통보(1972)
▲관화가 오윤 세상 떠남(1986)
▲연세대생 이한열군, 최후탄을 맞고 27일만에 세상 떠남(1987)
▲유교에 한국무역사무소 개설(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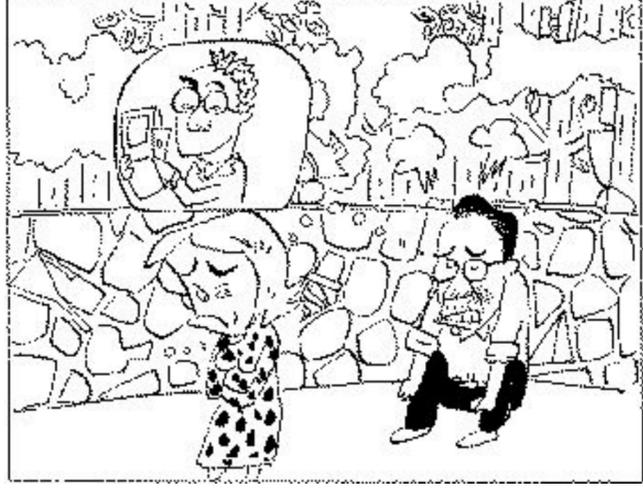
19. 거스 허딩크와 딕 아드보르트 감독의 뒤를 잇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현 대표팀 수석 코치를 계약 기간 2년의 신임 감독으로 임명했는데, 그는 지난 2002년에도 수석 코치로 허딩크 감독을 도와 한국을 2002 한일 월드컵 4강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① 필 베퍼벤 ② 이비차 오심
③ �벤 에란 에릭슨 ④ 레몽 도메네크

숨은그림찾기

< 28 >



▲지나주 정답
종이배, 음료, 팽이, 갈매기, 열대어, 바늘, 고추, 송사리, 성냥개비



①(아) ②(보) ③(세) ④(요) 슬리퍼, 종이비행기, 다리미, 갈매기, 부엌칼, 아이스크림, 찻술, 펜촉, 열대어

지갑속의 돈

남편이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아내에게 말했다.
"이 녀석이 돈 빼간게 분명해."
"왜 아이를 의심해요? 내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당신은 절대 아니야. 지갑에 돈이 조금은 남아 있거든"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안경순·구례군 문학면 김금옥·나주시 금천면

15일 光日盃
광주 전남 직배기탁대회
이번에는 2회전의 또 다른 한판이다. 직장 바둑계의 맹장인 광주광역시청 허우석 5단과 광주시교육청의 기우준 5단이 만났다. 허 5단은 수차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강자로 현재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중이다. 바쁜 직장생활에서도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이 정상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본격적으로 바둑 수업을 했다 라면 대단한 진전이 있었을 듯 싶다. 상대 기 5단도 허 5단에 못지 않은 경력을 갖고 있는 교육계의 강자다.

바둑소식
한게임, 연승행진 '골'
경기 한게임이 최근 열린 2006한국 바둑리그 5라운드 4경기에서 대전 신성건설과 2-2 무승부를 기록, 연승행진을 멈췄다. 4연승을 달렸던 한게임은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으나, 여전히 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리그 2위는 광주 KIXX, 3위는 대전 신성건설, 4위는 경북 웰드메르디앙, 5위는 서울 제일화재가 차지하고 있다. 인천 매일유업(6위), 대구 영남일보(7위), 부산 파크랜드(8위) 등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6일부터 진행되는 리그 6라운드에서는 파크랜드- 매일유업, 제일화재- 웰드메르디앙이 격돌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5일(음 6월 10일 乙未)
36년생 오전은 불평하나 오후는 평안하리라. 48년생 도유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의껏 협조하라. 60년생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처리하고 점검하라. 72년생 부주한 하루보다. 84년생 舊事가 시비로 나타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33, 36
37년생 주변 상황변화에 주의하라. 49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61년생 먼저 도유를 주면 보답은 그 이상이라. 73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85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행운의 숫자: 19, 28
38년생 간절한 소망은 꼭 이루어진다. 50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으니 활동을 많이 하면 재물이 들어온다. 62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과감하게 진행하며 나가라. 74년생 흐리던 날씨가 개고 평하니 해가 뜨리라. 행운의 숫자: 08, 37
39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그러고 없고 마음은 편안하리라. 51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와 즐거우리라. 63년생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75년생 뜻밖의 재난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부단히 살피라. 행운의 숫자: 10, 45
40년생 상대를 힘있게 하면 자신도 힘들다. 52년생 자녀와 많은 대화를 갖고 알뜰을 이야기하라. 64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76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41, 43
41년생 손익사양의 금전거래는 불랑거래가 될 수도 있다. 53년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길일이 된다. 65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77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32, 42
42년생 개진 불도 다시보지 화재주의를. 54년생 상대가 원한면 무엇 이든 다루어라. 66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 상상의 안정을. 78년생 감자가 속터지는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31, 35
43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55년생 오늘은 마음 편하게 지내도 좋으리라. 67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라. 79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행운의 숫자: 34, 44
44년생 소중한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으니 단속을 잘해야. 56년생 남과 딸다툼은 절대 피해야 한다. 68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달이 없다. 80년생 저녁의출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39, 40
45년생 증상을 잡으면 가사가 평안하리라. 57년생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손해가 줄어든다. 69년생 외적인 미러함보다는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81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수도 있다. 결과는 속상하다. 행운의 숫자: 01, 38
46년생 추진하는 일을 한번 더 점검하라. 58년생 부부간에 외출하고 다정다정한 시간을 내라. 70년생 자녀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라. 82년생 형제, 부모님을 찾아보고 안부를 확인 해보라. 행운의 숫자: 05, 20
47년생 교통사고를 조심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하라. 59년생 친한 사람의 재물을 건드리지 마라. 큰 것을 잃을 것이다. 71년생 충추고 노래는 하나 마음은 불평하다. 83년생 자기의 위치는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행운의 숫자: 03, 12

굿모닝 잉글리쉬 <682>
Sorry I had to keep you waiting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A: Sorry I had to keep you waiting. That was from one of my major clients.
B: It's OK.
A: Now where were we?
B: We've been tal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China market.
A: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중요 고객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B: 괜찮은데요.
A: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 했었죠?
B: 중국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keep + 목적어A + ~ing : 목적어로 하여금 (계속 ~)하게 하다
Where am I? : 여기가 어디죠? (병원 따위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따위).
talk about ~ : ~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82>
統率力に缺(かけ)けるところがあるからな
통솔력이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A: 今度の人事異動(じんじいどう)で、うちの課長(かちょう)は部長(ぶちょう)になれるかな?
B: さあ、人柄(ひとがら)はまじめなんだけど、ちょっと統率力(とうそつりょく)に缺(かけ)るところがあるからな。
A: そうだな。後は上(かみ)がどちらを評價(ひょうか)するにかかっているのかな。
B: そういことだね。
A: 이번 인사이동에서 우리과장님 부장이 될 수 있을까?
B: 글세, 사람은 성실하지만, 좀 통솔력이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A: 그렇군. 나머지는 위에서 어느 쪽을 평가하는가에 달려 있는 건가?
B: 그렇겠지.
人事異動(じんじいどう) : 인사이동
うちの課長(かちょう) : 우리과장님
人柄(ひとがら) : 인품
まじめだ : 착하다, 성실하다
統率力(とうそつりょく) : 통솔력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풍구워 <400>
我没带零钱
제가 잔돈이 없습니다
A. 到了, 零钱没带.
B. 给你一张.
A. 您有一块钱吗? 我给您六十元.
B. 对不起, 我没带零钱.
A. 도둑행수입니다. 36 원정입니다.
B. 100원만입니다.
A. 1위만 있으면요? 제가 60원인 은행권요.
B. 아깝습니다. 제가 잔돈이 없습니다.
중국어: 我没带零钱, 我没带零钱, 我没带零钱
한글: 我没带零钱, 我没带零钱, 我没带零钱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00>
燒却(소각)
사를 소, 물리칠 각
소(燒)는 화(火) + 오(堯: 높다)로, 불꽃과 연기가 높게 타는 모양이다. 각(却)은 무릎 꿇고 있는 모습(辵, 止)과 음(音) 부분인(去)으로, 무릎 꿇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에서 '물리나다'를 의미한다. 소각(燒却)과 소각(消却)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소각(燒却)은 '태워 버린다'는 말로, '쓰레기를 소각(燒却)하다', '오래된 명부(名簿)를 소각하다'로 사용된다. 반면에 소각(消却)은 소각(銷却)과도 같은 말로, 법률·경제 용어이다. 소(消)는 물이 가는 모습이고, 소(銷)는 쇠를 잘게 만든 모습으로 어느 쪽도 잘고 가늘게 하여 모음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소각(消却)은 '지워 없애다' 또는 '빚을 갚다'는 의미로, '주식소각(株式消却)', '자사주(自社株) 소각(消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쓰레기의 소각처리는 같은 분량의 폐기물(廢棄物)을 매립(埋立)할 경우와 비교하면 부피는 95~99%, 무게는 80~85%를 줄일 수 있다. 국토가 비좁은 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소각장(燒却場)을 보편적으로 선택한다. 하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장소 선정하기는 쉽지 않다.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소각장 숫자를 줄여가는 최선의 방법임은 자명하다.
<한예민(韓睿嫻)>
조선대학교 교편연구원 ☎ 230-6505